

# 의무기록실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김 옥 남

성모병원 의무기록실

## 目 次

- |                      |                       |
|----------------------|-----------------------|
| 1. 병원 편제상 의무기록실의 위치  | 4. Medical Statistics |
| 2. 의무기록 filing Space | 5. 의무기록의 대출           |
| 3. 의무기록의 질적 향상       | 6. 의무기록 분야의 전산화       |

## 緒 論

1982년 의무기록사 제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의료보험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의무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이 새로와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무기록실이란 종래의 Chart보관실이라 [redacted] 념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이다.

의무기록학이란 학문의 연조가 아직 어리며, 우리나라 병원 경영자의 대부분이 의무기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선진국의 이상적인 의무기록실만을 Model로 하여 운영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실무 담당자로서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론적 원칙론과 실무와의 거리를 가능한한 좁힘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실무 책임자의 임무가 아닌가

사료된다.

실제 기록실 운영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그 중 심각한 몇가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 1. 병원 편제상 의무기록실의 위치

의무기록실은 그 기능상 의무기록이 환자의 지속적 진료와 임상의학연구, 개발, 교육에 기여하는 학문적인 면과, 병원의 활동상황을 수치로 파악하고, 진료평가, 경영의 진단과 방침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통계를 통한 행정적인면의 양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 독자성과 기능을 인정받을 때에만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으나, 기록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대

부분의 병원이 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부서의 한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근래 의료수요가 급증하여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외래 의무기록을 기록실 업무에서 분리시켜 접수창구와 함께 원무과로 소속케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진료의 개선 - Service의 개선 -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의학의 발전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기록실에 대하여 조령모개식의 편제 변형만 시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설의 개선이나 인력의 보충등 투자를 통하여 그 위치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행정과 진료를 관장하는 경영자의 직속부서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서 진료의 개선은 물론 거시적인 의학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함이 바람직하겠다.

## 2. 의무기록의 Filing Space

근래에는 평생진료권을 사용하는 종합병원이 다수이고, 대부분의 병원이 이에 의한 의무기록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바람직한 것으로 Unit Numbering System을 사용하면 환자의 모든 진료기록이 한 곳에 모이게 되므로 종합적인 계속 진료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와 함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Filing Space의 문제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나의 번호로 평생을 진료하게 되므로 병원의 연혁이 길어지면 질수록 의무기록의 수가 늘어나 기록의 보관을 위한 공간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설 병원이든 기존 병원이든 경영상 외래에 충분한 공간을 기록실에 할애할 만큼 여유가 없는 것이므로, 대다수의 병원이 외래기록과 입원 기록을 분리시켜 관리하는 Unit-decentralization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이 System에서는 운영상 외래기록실이 접수창구와 불가분의 관계가 맺어지고, 입원기록실과 분리되는

형태를 가지므로 기록실 책임자는 접수창구와의 업무연결, 기록실 인력관리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파생케 된다.

의무기록의 Filing Space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기록의 microfilm化가 도입되어 현재 작업중인 병원들도 있고, 신중히 그 경제성 여부를 검토중인 병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15차 의무기록협회 세미나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microfilm化 실시 초기에는 막대한 경비와 인력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망설이게 되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 법적 기록보존 연한이 5년이라는 점에서 오래된 의무기록의 폐기를 원하는 병원도 있는 실정이다.

의무기록이란 단순한 치료 경과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 발전에 기여할 임상실증 자료로서 병원의 가장 큰 자산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여 의무기록의 영구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다.

## 3. 기록의 질적 향상과 적정진료 보장

1981년 이후 병원협회에서 실시하는 병원표준화 심사에 적정진료보장(Quality Assurance)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그 시행을 요구하게 되어, 병원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의무기록사 협회에서도 세미나를 통하여 Q.A에 대한 연구와 실행 등을 발표하고 또한 의무기록을 중심으로한 Q.A를 시도하고 있는 병원도 생기게 되었다.

Q.A.의 발상은 의료비 상승에 비하여 국민 건강 증진의 효과는 미미하여, 국민은 양질의 의료를 요구하게 되고, 전문의의 지식과 기술 문제가 논의되어, 의사단체의 자발적인 보수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의사단체, 대학 또는 정부가 주축을 이루어 의료의 질 평가

관리가 이루어져 오늘날 말하는 Quality Assurance Program까지 시행하게 되었다.

Q. A.는 Medical Audit의 단계를 넘어 진료과정 뿐 아니라, 여러가지 병원행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직적인 개선보장 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통합적 평가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Q. A.에 의한 치료과정의 평가란 의료인의 환자관리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활동을 직접 관찰 평가하는 방법과 의무기록을 통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관찰하는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많으므로 의무기록을 통한 방법이 보편적으로 채택되어지고 있다. 이 경우 기록의 불충분과 정확성, 신뢰성의 결여가 문제가 된다. 의무기록을 통한 의료감사나 Q. A. 심사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환자 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이 신속, 정확하고 완전히 기록되어야 하겠으나, 아직은 기록의 내용이 빈약하고 각종 검사보고서가 누락되어 기록에 첨부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기록의 완성을 지연시키며 미비기록의 숫자가 증가하여 기록실 업무수행에 과중한 압력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기록을 통한 Q. A.의 실시에는 완전한 의무기록이 필수요건이 되고, 기록실은 Q. A. Committee에 소속되어 Q. A.의 주제선정(Study Topic)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분석(Data Analysis)을 위한 제반 사무업무를 담당함으로써 Q. A.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다.

완전한 의무기록을 위한 정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 기준은 병원마다, 분석하는 사람의 의학적 지식의 차이에 따라 상당히 그 분석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수련병원에서는 자격있는 의무기록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정량분석을 시행하여 기록 내용의 질을 높이고 미비, 누락된 부분이 없는 완전한 기록이 되도록 힘써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또한 기록의 의무를 수련의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기적으로 전문의에 의한 정질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시행하여 기록의 질적 평가를 내리고, 더불어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여야 하겠다.

#### 4. 의료 통계

통계란 정확하며, 그 전문성이 충분히 나타나고, 필요한 분야의 모든 수치가 간단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하므로, 그 수집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병원통계 양상은 통계의 중복현상과 같은 통계에서 수치의 相異 등으로 판단의 기준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며, 각 부서마다 통계에 대한 기본개념이 달라, 그 내용이 상당히 유동적이며 신빙성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당국은 통계용어의 개념, 통계양식과 그 방법, 통계수집인의 자질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의료통계를 담당하는 기록실에서는 병원조직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통계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높이며 통계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겠다.

#### 5. 의무기록의 대출 - 정보의 유출 -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비밀기록문서일 뿐 아니라, 병원의 귀중한 자산으로 그 정보의 유출에는 엄격한 규정엄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기록실은 형식적인 규정만을 정하여 놓았을 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인 정보관리(기록대출 관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환자의 이동, 보험 청구, 법정분쟁, 제증명서발급 등 정보유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록관리부서의 엄격한 정보관리 규정과 그 실시가 필요하게 되고 많은 병원에서 이를 명문

화 하여 운영에 공정을 기하는 추세이다.

이에 기록실 책임자는 정보관리규정을 엄수하도록 하며, 부서 직원들의 직업 윤리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부당한 정보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 6. 의무기록분야의 전산화

최근 Computer의 대량 보급으로 의료업무 전산화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경영적 우선 순위에 의하여 현재 Computer의 이용은 대개의 경우 진료비 청구업무, 의료보험료 청구업무등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점차적인 전산화 추세에 따라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분야의 의료업무에도 전산화가 이루어지리라 사료되며, 의무기록 분야에서 장래의 전산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시기가 지금임을 알아야 하겠다.

의무기록 분야는 의료정보를 관장하는 분야인 만큼, 업무 전산화를 통한 종합의료정보 Center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 1) 환자등록 관리 System.
- 2) 의무기록 관리 System.
- 3) 환자병력 관리 System.
- 4) 질병분석 관리 System.

등의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문진System, 자동검진 System, 문헌검색 System, 의사교육 System, Order 관리 System (Order entry) 등의 Program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료에 관한 모

든 정보를 수집, 보관, 관리함으로써 진료에 일관성을 주고 의료 Service 개선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실은 의료업무 전산화 과정에서 병원내의 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관성있는 Program을 개발함으로써 환자등록, 환자간호, 병상관리, 의료품 관리, 진료비 청구, 보험관리, 자산관리, 물품관리, 인사관리 등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주는데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통합적 의료업무 전산화 추진에 있어 의료보험 연합회, 의료보험 공단, 병원협회를 주축으로 하고, 그 실제적인 전산업무 추진작업 과정에서 각 병원의 의무기록실 담당자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정보관리 세부 사항에 통일성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제적인 기록실 운영에는 상술한 몇몇 문제들 외에도 전문기술력에 대한 처우문제, 결혼 등으로 인한 전문인력의 빈번한 이직문제, 기록실 내의 사무인력과 전문인력의 비율배분문제,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록실 자체의 노력과 열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병원당국은 기록실이 제기능을 다하여 그 효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투자에 힘써서, 그 발전을 위해 최대한으로 지원하여야겠다.

의무기록실의 발전은 병원의 발전 뿐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